

# ‘유기상 vs 이정현’… 프로농구 올스타전

18일 잠실실내체육관서  
철거 앞둔 마지막 올스타

17일 콘테스트 예선 등  
전야제 즐길거리 ‘풍성’

국내 남자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별들이 총출동하는 올스타전이 이번 주말 서울에서 펼쳐진다.

한국농구연맹(KBL)은 17~18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2025-2026 LG 전자 프로농구 올스타전을 개최한다.

17일 각종 콘테스트 예선을 포함 한 전야 행사가 열리고, 18일엔 24 명의 올스타가 두 팀으로 맞붙는 본경기가 이어진다.

본 경기에서 KBL과 협업하는 IPX의 글로벌 인기 캐릭터 ‘라인 프렌즈’의 캐릭터의 이름을 따 선수들이 ‘팀 브라운’과 ‘팀 코니’로 나눠 경쟁한다.

창원 LG의 조상현 감독이 지휘하는 ‘팀 브라운’은 올스타 투표 2년 연속 1위에 빛나는 LG의 유기상을 필두로 허웅(KCC), 이선 알바노, 이정현, 김보배(이상 DB), 안영준, 김낙현(이상 SK), 라건아, 샘조세프 벨란겔(이상 한국가스공사), 박무빈(현대모비스), 한호빈(삼성), 네이던 나이트(소노)로 구성됐다.

유도훈 안양 정관장 감독이 이끄는 ‘팀 코니’에는 올스타 투표 2위인 이정현(소노)을 비롯해 허훈



지난해 2024-2025 KCC 프로농구 올스타전 덩크슛 콘테스트 결승에서 우승한 조준희(삼성). 연합뉴스

(KCC), 이관희, 저스틴 구탕, 이원석(이상 삼성), 이승현, 함지훈(이상 현대모비스), 박지훈(정관장), 양준석(LG), 문정현, 김선형(이상 kt), 자밀 워니(SK)가 이름을 올렸다.

프로농구 ‘별들의 축제’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된 2017-2018시즌 이후 8년 만이며, 잠실실내체육관에서의

올스타전은 2015-2016시즌 이후 10년 만이다.

특히 잠실종합운동장 재개발로 잠실실내체육관이 철거 예정이라 이곳에선 마지막으로 프로농구 올스타전이 벌어진다.

잠실실내체육관의 역대 명장면을 코트 매핑으로 연출한 ‘굿바이 잠실’ 콘셉트의 오프닝 쇼가 마련

돼 작별을 기념한다.

이번 올스타전엔 기존의 3점 슛과 덩크 콘테스트 외에 1대1 콘테스트가 추가돼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17일 전야제 행사로 각 콘테스트의 예선이 진행되고, 18일 본 경기 퀴터 사이 이어지는 결선에서 우승자가 가려진다.

3점 슛 콘테스트에는 최근 3년간 우승자인 최성모와 이근희(이상 삼성), 허웅이 모두 출전하고, 이번 시즌 최우수선수(MVP)급 활약을 펼치는 알바노 등도 도전한다.

덩크 콘테스트엔 지난해 우승자 조준희(삼성)와 신인 이유진(DB), 강지훈(소노)이, 1대1 콘테스트에는 허훈과 신인 강성욱(kt), 양우혁(한국가스공사), 에디 다니엘(SK)이 참가한다.

전야 행사예선 콘테스트 예선 외에 각 구단을 대표하는 아시아 퀴터 선수와 3년 차 이내 국내 선수가 대결하는 이벤트 게임도 열린다.

‘팀 아시아’로는 알바노와 벨란겔, 구탕 등이 출전하고, ‘팀 루키’에서는 문유현(정관장), 강성욱, 양우혁, 다니엘, 강지훈 등이 호흡을 맞춘다.

각각 41세와 40세로 프로농구 현역 최고참인 함지훈과 허일영(LG)이 각각 ‘팀 루키’와 ‘팀 아시아’의 사령탑을 맡는 것도 눈길을 끈다.

이번 올스타전에선 걸그룹 키키가 시투에 나서며 하프타임 축하 공연도 펼친다.

‘감독 자른’ 레알 마드리드, 2부팀에 충격파

스페인 국왕컵 16강서 탈락

알론소 감독과 상호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스페인 국가대표 수비수를 지낸 알바로 아르벨로아 레알 마드리드 2군(카스티야)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됐다.

이에 아르벨로아 감독의 코치 이력 등에 비춰 현지에서는 후임 인선이 다소 성급한 결정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아르벨로아 감독은 17일 치를 정규리그(라리가)를 대비한 듯 이날 주축 선수인 퀸리안 음바페, 호드리구 등을 아예 명단에서 빼며 로테이션을 가동했다.

양 팀은 동점 상황인 후반 49분 알바세테의 베팅코르가 페널티지역 안 왼쪽에서 오른발로 감아 찬 공이 골문 구석으로 들어갔다. 레알 마드리드는 충격적인 패배와 조기 탈락이라는 수모를 당했다. 연합뉴스



레알 마드리드(왼쪽)이 알바세테(오른쪽)에 패배하며 양 팀의 희비가 갈렸다. 연합뉴스

## 제주 체육 컨트롤타워 6개월마다 교체 “해도 너무한다”

2023년 좌재봉 과장 이후 1년 6개월 새 3명

지난해 도의회서 논란… “체육계 무시 행태”

제주 체육을 총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장이 또 6개월 만에 전격 교체됐다.

제주도는 15일 2026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예고에서 현성미 체육진흥과장은 예산담당관으로 전보하고 김용석 통상물류과장은 발령했

다. 지난해 하반기에 체육진흥과장으로 임명된 현성미 서기관은 6개월 만에 교체됐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들어 지난 3년여 동안 체육진흥과장은 거쳐간 공무원만 좌재봉-김학수-강희경-현성미 등 벌써 4명이고 2023년 보

임된 좌재봉 과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2024년 7월부터 모두 6개월 단명으로 끝났다.

이 같은 오영훈 도정의 인사는 지난해 제주도의회에서도 논란이

되면서 전문성 없는 인사에 단명

보직기간으로 제주 체육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기도 했다.

제주도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들

도 “얼굴 익힐만하면 바뀐다”고 볼

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주지역에서 전국 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는 상황에서 또 체육진흥과장과 체전기획단 단장, 체전기획과장이 일제히 교체돼 또다시 제주 체육계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제주 체육계 관계자는 “오영훈 도정은 체육의 전문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6개월 만에 교체되는 과장이 체육 발전을 위한 비전을 세울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위영석기자

## 칠십리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21일 개막

전국 600여 팀·1300여 명 참가

전국 테니스 동호인 1300여 명이 참가하는 제23회 서귀포 칠십리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제주에서 열린다.

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시티니스협회(회장 오상록)가 주최하고 (사)한국테니스발전협의회(회장 김영식)가 주관해 서귀포테니스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600여 개팀, 1300여 명이 참가, 5일 동안 열전을 벌인다.

경기는 국화부, 개나리부, 흔합복식부, 마스터스부, 철린저부 등 총 5개 부로 나눠 예선전(순위결정전)을 치른 후 본선전(토너먼트)을 통해 우승팀을 가린다. 대회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국 각지의 테니스 동호인들이 서귀포시에 모이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1968@ihalla.com

승 축 진  
서기관



김 달 호

형 제 일 동

서기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 가

大勢 대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Q마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구독 750-2330·서귀지사 732-5552